

火生土의 概念에서 본 心과 消化의 相互關係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俞熙正¹·尹暢烈¹ *

火生土之方面論述而心與消化之互相關係上討論

俞熙正¹·尹暢烈¹ *

¹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對人體上說, 喫的東西和進行消化作用是維持生命過程當中很重要過程之一. 這樣吸收水穀之物質一定須要水穀之消化而吸收, 然後能產成人體須要物質的精氣神血. 所以稱爲脾胃是‘後天之本’. 還有胃就匯聚水穀而腐熟之處, 所以稱爲‘水穀之海’. 在五行上脾胃是配列屬土, 消化過程換言之‘火生土’的過程. 體內生理方面的火有兩種一爲君火和還有一個是相火. 已往韓醫學理論之消化是宋代許叔微主張的‘命門火’理論. 他提到腎之‘命門火’能腐熟水穀, 所以命門之火功能減少的話必導致消化功能也減少. 清代醫家張錫淳在『醫學衷中參書錄』中說道‘心君火’主消化而助‘命門相火’的. 本論文是心的君火在消化過程中關於脾胃部分爲重點, 次之火生土之方面論述, 還有在心與消化之互相關係上討論.

Key Words : sea of food and drink(水穀之海), the king fire(君火), the premier fire(相火), fire generating earth(火生土), digestion

I. 緒論

『素問·上古天真論』에는 上古時代 사람들은 100세 이상 장수를 하였으나 후세의 사람들은 그 절반의 수명도 못살고 몸이 쇠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논하였다. 上古時代眞人は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허욕을 없애면 眞氣가 보전되고 精神이 산란해지지 않으면 病이 어디서 생기겠는가.”¹⁾ 하여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東醫寶鑑·身形門』 以道療病編을 보면 “欲治其疾 先治其心”²⁾하여 또한 心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

었다.

『東醫寶鑑·身形門』 丹田有三編을 보면 사람은 3개의 丹田이 있고 上丹田에는 氣를, 中丹田에는 神을, 下丹田에는 精을 저장한다. 사람에게 精·氣·神의 3가지가 주인이라 하였다³⁾. 이 精·氣·神의 상관관계는 “精能生氣 氣能生神 精滿則氣壯 氣壯則神旺 神旺則身健”⁴⁾이라 하여 精이 氣를 생하고 氣는 神을 생한다고 하였다. 精과 氣는 둘 다 飲食의 영양분에서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에 精은 飲食의 영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E-mail : yooney@dju.ac.kr Tel : 042) 280-2601, 접수일(2008년 7월 30일), 수정일(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3, P.18.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2)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126.

3)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120.

【丹田有三】“[仙經]曰 腦爲髓海 上丹田 心爲絳宮 中丹田 膈下三寸 爲下丹田 下丹田 藏精之府也. 中丹田 藏神之府也. 上丹田 藏氣之府也.”

4)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142.

양분으로 만들기에 精字에 米字가 들어가 있다고 하였다⁵⁾. 氣 또한 飮食物에서 생기에 氣字에 米字가 들어가 있다고 하였다⁶⁾. 『素問·六節藏象論』⁷⁾에 五味가 神을 생한다고 하였다. 五味가 五氣를 영양해주면 氣가 조화되고 津液이 생겨나 神이 自生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飮食攝取에서 바로 神이 생긴다는 것보다는 “氣能生神” 氣에서 神이 생긴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物質的인 基礎 위에서 즉, 잘 먹어야 精과 氣가 잘 생기고 그래야 神도 왕성해진다는 결론이다. 神이 精과 氣를 바탕으로 생겨나지만 거꾸로 精과 氣를 다스리고, 또한 心은 精과 氣의 生成根本이 되는 消化過程에 원동력이 되기에 心을 가장 중요시 했다고 생각한다. 心이 精을 주관한다⁸⁾는 것과 心이 氣를 주관하는 것⁹⁾은 문헌에 나오는 바이다. 心이 消化過程에 관여하는 것은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音樂을 연주하거나 방송을 틀어주어 飮食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東醫寶鑑·內傷門·內傷將理法』에 “『周禮』에 ‘音樂을 들으면서 飮食을 권하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脾는 音樂을 좋아하므로 그것을 들으면 脾가 곧 消化를 시킨다.”¹⁰⁾이는 마음이 편해야 脾胃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心은 火에 배속된다. 河圖에 있어서 火는 南쪽에 해당되며 숫자로는 2와 7에 해당된다.¹¹⁾이 2와 7의 數의 의미에 대해서 “우

리 몸의 아홉 구멍은 얼굴의 일곱 구멍에다 下體의 두 구멍을 합한 것으로 얼굴의 일곱 구멍은 精神的인 作用을 하고, 下體의 두 구멍은 物質을 排泄하는 일을 한다.”¹²⁾고 하였다. 이것을 근거하여 본다면 心은 精神作用도 주관하며 동시에 物質의 排泄도 주관한다. 前陰과 後陰은 小便과 大便의 통로인데 大小便은 消化代謝에 있어서 최종 生成物이다. 이는 곧 心이 消化過程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精神異常인 狂證에 있어서 치료법은 下法으로 한다¹³⁾. 이러한 것에서도 下部 二竅가 精神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二竅가 心과 연관이 되니 精神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본 論文에서는 『東醫寶鑑』, 『黃帝內經』, 『周易』 및 關聯書籍을 통하여 心과 消化에 대하여 考察하여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心은 五行배열에 있어서 2·7 火에 해당한다. 먼저 心의 韓醫學的 意味를 살펴보고 이어서 人體消化過程을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心과 消化의 相互關係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消化에 관한 서양의학적 考察

우선 消化의 정의부터 본다면 “消化란 섭취한 음식물을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액체로 만들고 세포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로 변화 시키는 물리적·화학적 작용 또는 그 과정.”¹⁴⁾라고 하였다.

사람의 消化過程을 消化器管에 따라 본다면 입에서의 消化, 胃에서의 消化, 小腸에서의 消化, 大腸에서의 水分吸收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리학』에는

5)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1999, p.142.

【精爲至寶】“日啖飮食之華美者爲精 故從米 從青.”

6)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1999, p.157.

【氣生於穀】“日啖飮食之精熟者益氣 此氣生於穀 故從氣從米.”

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p.66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脩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8)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1999, p. 146. “精之主宰在心 精之藏制在腎”

9)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1999, p. 157. “心爲使氣神”

10)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1999, p.1168. “脾好音樂 夜食多則脾不磨 周禮曰 藥以侑食 蓋脾好音聲絲竹 耳纔聞 脾即磨矣. 「活人心」

11) 한규성, 주역에 대한46가지 질문과 대답, 서울, 도서출판사 동녘, 1996, P.68.

12) 한규성, 주역에 대한46가지 질문과 대답, 서울, 도서출판사 동녘, 1996, p.181.

1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p.276.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奪其食即已. 夫食入於陰, 長氣於陽, 故奪其食即已.”

14) 民衆書林編輯局, 옛센스國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1, p.1269.

“구강 및 식도 입 속의 음식물은 즉시, 혹은 씹으면서(저작) 타액과 섞여진 후에 인두를 지나 식도(esophagus)로 넘어가게 된다.

저작운동 : 저작(mastication) 과정에는 상하악의 치아, 저작근, 혀와 뺨, 구개 및 구강바닥 등의 여러 구조가 참여하여 협동하여야 된다. 저작운동은 반사 작용으로서, 수의적 조절 없이도 음식물은 혀와 뺨에 의하여 끌고 갈 수 있는 치아 사이로 계속 밀어 넣어지게 된다. …… 이렇게 씹는 동안 음식물은 타액과 잘 섞여지고, 최종적으로는 식괴(bolus)가 형성되어, 혀가 경구개(hard palate)를 누를 때 이 식괴는 인두 속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

타액분비 : 구강 내로 흘러 나오는 타액(saliva)은 주로 세 쌍의 큰 타액선에서 생산된다. 즉 이하선(parotid gland), 악하선(submandibular gland) 및 설하선(sublingual gland)이 있다. 설하선은 구강 점막 내에 산재하고 있는 수 많은 작은 타액선과 같이, 붉은 용액을 끊임없이 분비하고 있지만, 이하선과 악하선은 자극을 받을 때에만 타액을 분비한다. 하루에 분비되는 타액의 총량은 0.5-2.0리정도이며, 항상 저장액(hypotonic)인 것이 특징이다. …… 타액의 몇 가지 중요기능을 살펴보자 1) 타액 내 다량의 물은 섭취된 음식을 희석하는 용매로써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음식물의 맛을 보려면 우선 타액에 음식물이 녹아 각 분자들이 미뢰(taste bud)에 확산되어야만 미각을 느낄 수 있다. 2) α-amylase (α-1, 4-glucosidic linkage에 작용)는 음식물이 입 속에 있을 때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그 작용은 위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된다. 3) 타액 중의 점액 성분은 음식을 미끄럽게 하여 쉽게 삼키게끔 해준다 4) 이외에도 타액은 구강 내를 축축하게 유지시켜, 말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상 입속을 청결하게 씻어 주며, SCN⁻ (thiocyanate ion, rhodanate ion)은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다. 타액의 PH와 전해질 농도는 타액 분비율에 상당히 좌우된다. 타액 분비가 저하될 때는 약간 산성화 되나, 다량으로 분비시에는 약 알칼리성(PH 5.8~7.8)이 된다. …… 타액 분비는 조건반사(conditioned reflex)와 무조건반사(unconditioned reflex)에 의해 조절된

다. 사람에서 수면 중에 타액 분비율은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적고, 음식섭취 중에는 반사기전에 의해 증가 된다.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음식을 생각만 하여도 입속에 침이 흘러나올 수 있다. 반사기전은 후각, 미각 또는 접촉 감수체의 흥분으로 유발된다.

연하운동 : 저작운동에 의해 식괴로 된 음식물이 구개궁, 혀의 뿌리, 혹은 인두 뒷벽과 접촉되면 중추 신경계에 의한 연하반사(swallowing reflex)가 유발된다. 연수에 있는 연하반사 중추는 설인신경의 구심성신경에 의하여 흥분되고, 말초로 보내는 원심성 명령은 설하신경, 삼차신경, 설인신경 및 미주신경을 통하여 전달되어 구강, 인두, 후두 및 식도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 : 위(胃, stomach)는 음식물의 저장창고로서 역할을 하며, 삼켜진 음식물은 위액과 섞이고 난 후 한번에 소량씩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한다.

위운동 : 위운동은 음식물의 위내저장, 교반 및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위는 상당량의 음식을 위내압의 별 증가없이 받을 수 있다. 즉 피동적 장력이 위내 용량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 …… 위액과 음식물(식괴)의 교반은 연동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교반운동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연동파는 20초 간격으로 보통 위체 중간부(midcorpus)의 대만(greater curvature) 근처에서 생겨나고, 10~40 cm/s 의 전파속도로 유문을 향해 진행되어 나간다. 이러한 교반운동으로 위벽에 가까운 음식물은 뒤쪽으로 밀리게 되고,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되어 죽모양으로 된 음식물과 위액의 혼합물을 미즙(chyme)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위 내용물의 교반작용은 너무나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1~2시간 뒤에도 식괴 내부의 pH는 5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동안에 타액효소에 의한 탄수화물의 소화작용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위의 교반운동으로 위내용물(미즙)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강력한 유문동 연동파와, 유문동 괄약근과 상부 십이지장의 수용성 이완으로 위배출이 일어난다. 위배출은 여러 가지 인자들, 즉 음식물 총량, 조성 및 입자 크기 등에 좌우된다. 잘 씹지 않고 먹은 음식물은 액체류보다는 오래동안 위내에 머

무르게 되고, 지방질 음식이 많은 식사 후에는 위배출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고, 단백질은 조금 빠르고, 탄수화물 계통이 제일 빨리 내려간다.

위운동의 조절 : 위운동 조절에는 내원성 신경총, 미주신경 및 위장관 호르몬이 모두 참여한다. 위운동에 적합한 자극은 위벽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점막하 신경총에 있는 쌍극 신경절 세포에 의하여 증대되는 것 같다. 조절 신경계 중 가장 고위 신경은 미주신경으로서, 미주신경을 중간에서 절단하고 말초단을 자극하면 위에 강력한 수축이 유발된다. …… 위배출을 조절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인자 외에 십이지장에서 연유하는 강력한 영향 인자들이 증첩된다. 동물실험의 결과를 보면 상부 십이지장(duodenal bulb)이 음식물로 잘 경우에는 위배출 운동이 억제되고, 반대로 빌 때는 다시 촉진되는데, 이것은 미주신경을 매개로 한 장위반사(enterogastric reflex)라고 알려졌다.

위액분비 : 위액분비선(gastric gland)의 선세포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위액은 2~3 L이고, 이들의 구성은 부위에 따라 다르다. 위의 실제적인 소화액은 위저(fundus)와 위체(corpus)에 있는 위선(main gastric gland)에서 분비되며, 여기에 중요 세포로는 pepsinogen을 생산하는 주세포(chief cell)와 위산을 생산하는 벽세포(parietal, oxyntic cell)가 있다. 분문 및 유문 부위에서는 점액(mucus)이 유일한 외분비 산물이다.

소장 : 소장(small intestine)에서 산성 미즙이 췌장, 간장, 장선에서 나온 알칼리성 용액과 혼합된다. 췌장액 중의 효소와 상피세포의 효소들이 담즙과 더불어 대부분의 소화 과정에 참여하며, 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화산물의 체내흡수가 시작되는데 이 흡수과정은 거의 소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장운동 : 소장운동은 처음에는 미즙과 췌장액, 담즙 및 장액을 철저히 섞어 준다. 이와 같은 미즙과 소화액을 섞어 주는 교반운동에는 비추진성 연동운동, 분절운동, 시계추 운동 및 용모운동(contraction of villi)이 있다. 비추진성 연동운동이란 흔히 십이지장과 상부 공장에서 관찰되고, 연동과는 항상 항문방

향으로 전파되나,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만을 진행한다. 윤상근의 수축으로 생기는 수축환(contractile ring)이 전파되는 수축과는 일반적으로 정상 연동과에서와는 달리 이완과가 선행하여 달리지 아니한다. 분절운동도 윤상근이 수축하여 일어나는 교반운동으로써 15-2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1-2cm 폭의 윤상근이 수축을 하여 소장은 마치 소세지모양을 나타내었다가, 다시 수축하였던 부분이 이완하고 이완하였던 부분이 수축하여 미즙을 소화액과 섞어준다. 이와 같은 분절운동은 분당 8-10 번 정도의 빈도로 반복되고 수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시계추 운동이란 종주근의 수축으로 주로 소장 내용물에 대하여 창자벽이 변위(displacement)를 일으키게 하는 교반운동으로서, 분절운동과 시계추운동이 교대로 일어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교반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소장 용모는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수축과 이완을 율동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반복하여 새로운 미즙과 상피세포가 접촉하게끔 해 준다. 이와 같은 용모운동은 점막하 근육섬유의 율동적 수축에 의하여 일어 나는데 이 운동으로 또한 중심림프관(central chylous vessel)을 통하여 림프 유통을 도와 준다. ……실험식(test meal)을 먹은 후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제일 빠리는 음식섭취 후 4시간에 시작되고, 총 8-10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대장으로 넘어간다.

소장운동의 조절 : 소장운동은 일차적으로 근층각 신경총을 경유하여 조절된다. 외원성의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은 확실히 내원성 신경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덜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주신경을 절단한 후에도 별로 눈에 띄는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장운동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중요자극은 소장벽의 확장이다. ……소장의 연동운동은 명백하게 방향성을 띠고 있다. 즉 연동과는 항상 입쪽에서 항문방향으로 진행된다(cannon의 장의 법칙).

췌장액분비 : 췌장의 외분비 부분은 배 안에 있는 타액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하루에 1.5-2 L의 췌장액을 생산한다. 소화 중에 운비되는 췌장액은 혈장과 등장성이고, pH 8~8.5 정도의 알칼리성이다. …… 췌장액내 효소들은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

물 소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췌장액 분비의 조절 : 췌장액 분비는 위액 분비의 뇌상 중에 이미 시작되는데 이것은 미주신경의 반사 기전 때문이다.

간 및 담즙계 : 간(liver)은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기관으로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호르몬, 비타민 및 외원성 물질 대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담즙분비 : 담즙(bile)은 간에서 하루 종일 계속하여 분비되는데, 하루 총생산량이 0.5~1.0 L이다.간에서 생산된 담즙은 황금색을 띠고, pH 7.8~8.6이며 혈액과 거의 등장성이다. 소화가 진행 중이 아닌 공복시에는 공복시에는 계속하여 생산되는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고 농축되는데 이때 Oddi괄약근은 닫혀져 있다.…… 담즙 분비는 원칙적으로 능동적 이동 기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담즙염과 Na⁺는 간세포에서 담세관으로 능동적으로 분비되고, 물은 삼투질 농도경사에 따라 이동한다.…… 하루에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는 bilirubin(200~300 mg)중에서 약 10~20 % 정도가 urobilinogen으로 재흡수되어 장-간 순환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배설된다.

장액분비 : 십이지장에는 대단히 끈끈하고, 많은 양의 HCO₃⁻로 인하여 pH가 8.3~9.3 정도인 알칼리성 장액을 분비하는 Brunner선이 있다.…… Brunner선의 끈끈한 알칼리성의 점액성 분비물은 아마도 위산으로부터 십이지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 및 직장

대변의 생산 : 소장으로부터 회맹부 판막(ileocecal valve)을 통하여 맹장(cecum)으로 넘어가는 내용물의 양은 하루에 200~500 ml 정도인데, 이것은 대장(large intestine)에서 수분의 흡수로 농축된다.……대변 색깔은 분해된 담즙 색소에서 비롯되고, pH는 5~7 정도인데, 이것은 발효로 생기는 산성물질 때문이다. 대변 냄새는 황화수소, 유기산, indole 및 skatole에서 연유된다.

배변 : 배변(defecation)은 일차적으로 배변반사에 의해 일어난다. 배변에 대한 자극은 집단수축으로

직장에 대장 내용물이 차면서 직장이 확장되는 것이다. 배변의 절박감은 직자의 신장수용기에 의하여 증가되고, 이것은 음부신경(pudendal nerve)과 골반신경(pelvic nerve)을 따라 천수의 배변반사 중추로 전도된다.”¹⁵⁾라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 중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胃에서의 消化와 小腸에서의 消化이다. 주요문헌에 나타난 脾胃에서의 消化와 小腸에서의 消化를 살펴보고 心과의 相互關係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火生土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에 脾胃에서의 消化와 心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心臟의 形象과 人體의 七竅

『東醫寶鑑』에서 “心臟의 형태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 같고 가운데 9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곳을 天真의 氣를 이끌어 가는 精神이 들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 (內經 註) 心臟의 무게는 12兩이다. 속에 구멍이 7개 있고 털이 3개가 있으며 精汁 3흡이 들어 있는데 精神을 주관한다. (難經) …… 心臟에는 구멍 7개와 털 3개가 있는데 7개의 구멍은 北斗七星에 상응하고 3개의 털은 三台星에 상응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성이면 하늘과 통한다.(入門) …… 心臟의 形態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 같아서 위는 크고 아래는 뾰족한데 肺에 거꾸로 붙어 있다.(類聚)”¹⁶⁾ 라고 心臟의 形象을 說明하고 있다. 위의 心의 形象 중에서 공통된 부분은 心臟에 구멍이 있다는 점과 精神이 관련된다는 점이다. 心臟의 구멍의 개수는 제일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7개이다.

五行上 心은 火에 배속된다. 河圖에 있어서 火는 남쪽에 해당되며 숫자로는 2와7에 해당 된다. 『素問·金匱真言論』에 “南方 赤色은 心에 入하여 通하

15) 김기환, 김진, 김중수, 성호경, 심동원, 엄대용, 엄용의, 이상돈, 이종훈 저. 생리학. 서울. 의학문화사. 1992. pp.199-218.

16)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 310. “【心形象】○心形如未敷蓮花 中有九空 以導引天真之氣 神之宇也. 「內經」註. ○心重十二兩 中有七孔三毛 盛精汁三合 主藏神. 「難經」○心有七孔三毛 七孔以應北斗七星 三毛以應三台 故心至誠則天無不應也. 「入門」○心形如未開蓮花 上大下銳 倒懸着肺. 「類聚」”

고……그 味는 苦이고, 그 類는 火이고,……그 音은 徵이고, 그 數는 7이고, 그 臭는 焦입니다.”¹⁷⁾라 하여 心에 7이 배열됨을 이야기 하였다. 『주역에 대한 46가지 질문과 대답』에 “7은 양수이고 7은 움직임이 되고 7은 속마음이고 사람에게 비유하면 7은 우리의 얼굴의 일곱 구멍이 생겨난 원리이고 하늘의 해·달과 화·수·목·금·토 오성을 합한 七曜라는 것이 되고 사람의 마음에서 7은 七情이 된다.”¹⁸⁾라 하여 7의 의미를 설명해 놓았다. 여기에서 7은 七情, 七曜, 얼굴의 七竅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몸의 아홉 구멍은 얼굴의 일곱 구멍에다 하체의 두 구멍을 합한 것으로 얼굴의 일곱 구멍은 精神의인 作用을 하고, 하체의 두 구멍은 物質을 排泄하는 일을 한다.”¹⁹⁾라 하여 얼굴의 七竅는 精神作用을 한다고 하였다. 心臟의 形象에서 유추 할 수 있는 부분은 心은 火에 배속이 되고, 心藏神 하기에 火의 숫자인 2와 7 중에서 七孔을 이야기하였다는 점이다. 心臟에 실제적으로 七竅가 있음을 이야기했음이 아니고 얼굴의 七竅가 神氣之門戶이니 그것과 연관하여 거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人體에 있어 九竅가 있는데 “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²⁰⁾라 하여 上竅는 얼굴의 七竅이고 下竅는 前陰과 後陰이다.

『漢方醫學講習書』에 “五臟의 精氣는 頭上에 開口하니 이것을 五官이라고 한다. 五臟은 陰이다. 陰이 極에 도달하면 陽을 生하니 陽性은 清虛하고 上部와 친하다. 清虛함이 極에 도달하면 神明이 나오는 것이다. 五神이 나타남에 上部의 七竅를 열어 소리·색·냄새·맛을 이것으로 辨別하나니라. 五官七竅는 神氣의 門戶이니 清陽이 上升하면 七竅가 비어 靈敏하게 되고 濁陰이 逆上하면 五官이 막히게 되니라. 清陽이 올라가고 濁陰이 내려감은 일정한 자리가 있다. 사람이 젊어서는 清陽이 오르고 濁陰이 내려가는 고

로 上이 虛하고 下가 實하다. 늙고 쇠약함에 清陽이 下陷하고 濁陰이 逆上하는 고로 上이 實하고 下가 虛해진다. 七竅가 비어 靈敏한 것은 上虛한 것이요. 五官이 막힘은 上實한 것이다.”²¹⁾하여 上七竅와 그 作用機轉에 대하여 說明하였다. 五臟이 얼굴에 각각 開竅하였는데 六腑가 陽에 속한다면 五臟은 陰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陽인 얼굴에 기운이 올라오려면 陰이 極해서 생긴 清陽이 올라와야 五官이 제 機能을 발휘하고 만약 濁陰이 올라오면 五官이 막혀 機能을 발휘하지 못한다. 젊어서는 清升濁降 하여 七竅가 空靈 즉 銳敏하나 老衰하여서는 清陷而濁逆하여 七竅가 제 機能을 못함을 이야기 하였다. 人體에 있어서 升降을 담당하는 것은 소위 中氣이고 臟腑로는 脾胃이다²²⁾. 上七竅에서 神明이 出하는 것은 다시 말해 心이 五官을 主管한다는 것이다. 五官이 제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清升濁降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中氣가 升降의 役割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臟腑로서는 土에 해당하는 脾胃가 이에 해당된다.

『中醫臟象學』에 心和脾의 관계는 “心主血의 기능은 반드시 心氣의 充滿, 血液의 充盈, 經脈의 순조로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心主神志의 기능 또한 반드시 氣와 血이 物質基礎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脾가 後天之本이며 氣와 血을 만드는 根源이 되므로, 오직 脾의 氣運이 건실하게 運行되어야 氣와 血의 根源이 充足되고, 心血이 充足되어야만 비로소 心이 주관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된다. 脾가 統血한다는 것은 血液이 脈外로 나가지 않게 해서, 血液이 정상적인

17)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pp.37-39. “南方赤色, 入通於心, … 其味苦, 其類火, … 其音徵, 其數七, 其臭焦.”
18) 한규성 원저. 한필훈 엮음. 주역에 대한46가지 질문과 대답, 서울. 도서출판사 동녘, 1996. p.180.
19) 한규성 원저. 한필훈 엮음. 주역에 대한46가지 질문과 대답. 서울. 도서출판사 동녘, 1996. pp.180-181.
20)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p.41.

21) 成周鳳 著.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35. “五臟之精氣開口於頭上 하니 是謂五官이니라. 五臟은 陰也라. 陰極則生陽하니 陽性은 清虛而親上하나니 清虛之極에 神明出焉하야 五神發露에 上開七竅하야 聲色臭味於此辨焉 하나니라. 官竅者단 神氣之門戶也니 清陽이 上升則七竅空靈하고 濁陰이 上逆則五官이 窒塞이니라. 清升濁降은 一定之位라 人之少壯에 清升濁降故로 上虛下實하고 老衰에 清陷而濁逆故로 上實而下虛니라. 七竅之空靈은 以其上虛요 五官之窒塞은 以其上實이니라.”
22) 成周鳳 著.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1. “一氣混沌하야 氣含陰陽則有清濁하니 清者는 浮升하고 濁者는 沈降은 自然之性也니라. 升者단 爲陽하고 降者는 爲陰하니 陰陽이 異位하야 兩儀分焉이라. 清濁之間을 是謂中氣니 陰陽升降之樞軸이니 所謂土也니라.”

全身輸布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神志活動 역시 이렇게 物質의 基礎가 充足되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心이 ‘五臟六腑의 大主’가 된다. 心이 血液을 주관하는 바는 脾가 營養을 공급하는 作用이 있게 하고, 脾가 氣와 血을 運行하게 하여 後天之本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心이 저장하는 神은 脾의 生理기능에 대해 協調와 促進作用이 있다.”²³⁾ 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心과 脾의 相互關係는 脾가 後天之本으로서 心에 氣와 血의 物質의 基礎를 공급해 주어야만 心의 神志活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中醫臟象學』에 “心과 胃의 關係는 주로 心의 心主血, 心藏神의 기능과 胃의 受納腐熟水穀 기능 및 脾와 함께 氣血生化之源이 되는 關係상에 표현되어 있다. 脾胃가 氣血生化之源이 되기 때문에, 心이 주관하는 血은 전적으로 脾胃가 水穀精微를 運化하여 化生하는 바에 의지한다. 胃經은 心과 經絡으로 통하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心에 끊임없이 精微物質을 보내서 充養시켜준다. 『素問·平人氣象論』에 ‘胃의 大絡은 虛里 라고 하는데, 膈을 貫하여 肺에 絡하고 左乳下로 出하며 그 動함이 衣에 應한다.’라고 했는데 虛里는 心尖搏動處를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양자의 關係는 밀접하다. 胃의 生理機能이 正常이라면, 生化에 근원이 있어, 脈道가 充만하여, 心이 비로소 主하는 바가 있게 된다. 고로 『靈樞·玉版』에 말하길 ‘胃는 水穀과 氣血의 바다가 된다.’고 하였다. ‘心主神明’의 ‘神明’도 血이 物質의 基礎가 되니, 단지 脾胃가 건강하고 왕성하며 心血이 充만하기만 한다면 心神이 비로소 精明하고 어둡지 않게 된다.”²⁴⁾ 고 하였다.

23)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 102. “在生理上,心的主血功能须以心气充沛,血液充盈,脉道通利为前提;心主神志的功能,也必须以气血为物质基础. 而脾为后天之本,气血生化之源,只有脾气健运,气 血化源充足,心血充盈才能使心有所主;脾统血,使血液不致溢于脉外,血液才得以正常输布全身,神志活动也就有充足的物质基础. 另一方面,心为“五臟六腑之大主”,心所主的血液对脾有滋养作用,使脾能运化气血而为后天之本. 同时,心所藏之神也对 脾的生理功能有协调和促进作用.”

24)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 104. “心与胃的關係,主要表现在心主血, 藏神和胃受納腐熟水谷, 与脾共为氣血生化之源的關係上. 脾胃为氣血生化之源, 心所主之血,全賴脾胃运化水谷精微所化生. 胃絡通心,由此而給心源源不断地輸送精微物質所充養. 《素問·平人氣象論》曰“胃之大絡,名曰虛里,貫肺絡肺,出于左乳下,其動應衣”

간주려 본다면 心의 心主神, 心主血 하는 기능 모두 脾胃의 氣血生化之源으로서의 作用에 의지한다. 동시에 胃는 心과 經絡으로 통하여 있으므로 心과 胃는 밀접한 關係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心과 消化過程에 중요한 臟器인 脾胃와의 밀접한 聯關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心과 人體의 火熱

『東醫生理學』에 心 生理機能의 特性을 크게 10가지로 요약하였다.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心主血脈 其華在面 ②心生血 ③脈舍神 ④心主脈 ⑤心主神明 ⑥心主熱 ⑦心惡熱 ⑧心主汗液 ⑨心主喜 ⑩胸爲心之部位 이 중 心主熱의 내용을 보고자한다. “心은 君火를 主管하므로 本熱이며, 心은 營氣를 主管하므로 內와 熱을 主한다. 熱의 성질은 瘧疾, 表에 있고 內에 있지 않다. 瘧疾, 上에 있지 下에 있지 아니한다. 만일 熱이 內에 있으면 鬱이라 하고, 熱이 下에 있으면 陷이라 한다.”²⁵⁾ 고 하여 心이 君火이고 人體에 있어서 本熱이라고 하였다. 火와 熱은 용어 사용에 보통 구별을 두는 것이 없이 동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本草問答』에 “이것은 구별이 불가한데, 예를 들어 여름에 날씨가 熱氣를 더하고 맹렬한 태양이 증천에 떠서 온몸이 땀이 목욕하듯이 흐르면 이것은 熱로서 天의 陽인 것이고, 땀나무나 석탄을 태워 그 기세가 화듯할 같으면 이것은 火로서 地의 陽인 것이다. 天의 陽은 공중에 있으면 熱氣가 되고, 나무에 붙으면 타올라 火가 되며, 사람의 陽은 심중에 있으면 熱이 되고, 血分에 붙으면 心包로 돌아가 肝木과 합하여 火가 되니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熱이 火와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²⁶⁾라

虛里,指心尖搏動處, 由此可见 兩者关系之密切. 只有胃的生理功能正常, 生化有源, 脉道充盈, 心才有所主. 故《靈樞·玉版》說“胃者, 水谷氣血之海也.” “心主神明”, “神明”也以血为物质基础, 只有脾胃健旺, 心血充足, 心神才能精明无晦.”

25)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3. p.280.

26) 唐宗海 原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편저. 懸吐完譯本草問答.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p. 254-259. “此不可辨 有如夏月天氣亢陽 烈日當空 揮汗淋漓 此爲熱 乃天之陽也 有如燔柴炭灰 勢若燎原 此爲火 乃地之陽也. 蓋天之陽 在空中

하여 화와 熱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臟腑 相互間의 作用에 있어서 화와 熱이 분명하게 나뉘어 作用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나눌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는 것이니, 딱 잘라 경계를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늘의 陽은 땅의 火를 도울 수 있고, 땅의 火도 역시 하늘의 陽을 도울 수 있다.”²⁷⁾ 하여 화와 熱의 차이점은 區別은 해야 하지만 人體代謝에 있어서 엄밀하게 구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본 論文에 火熱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區分하지 않고 根據文獻에 기준하여 이야기를 전개 하고자 한다.

火生土에 관하여 『中醫臟象學』에는 “五行방면에 있어서 心은 火에 속하고, 脾는 土에 속하고, 兩者가 火土相生之臟으로 母子關係를 구성하고 있다. 淸·何夢瑤는 『醫編』중에 설명하길 ‘脾가 능히 水穀을 運化하는 것은 氣다. 氣虛하면 凝滯不行하고, 心火를 얻어야 그것을 運化 시킬 수 있다. 이에 健實한 運化가 쉬지 않는 것은, 이것이 心火가 脾土를 生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心火와 脾土의 相生關係를 지적하였다. 소위 相生이라고 하는 것은 滋養하고 生成함과 溫煦함을 얻음이다. 바꾸어 말하면, 脾土가 반드시 心火와 命門火의 溫煦를 얻어야만 비로소 運化를 무궁하게 하여 萬物을 滋榮하게 된다.”²⁸⁾고 하였다. 이처럼 『中醫臟象學』에서는 脾土의 運化의 기능은 心火의 溫煦를 얻어야 제 기능을 한다고 하였고 이것이 火生土의 관계라고 하였다.

心과 消化過程에 있어서 心의 火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火生土의 作用으로 消化의 過程이 진행됨을 언급하기 위함이다.

爲熱氣 附於木則燃爲火 人之陽 在心中亦爲熱 附於血分則歸包絡 合肝木而爲火 知此則知熱與火有別.”

27) 당종해 원저.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편저. 懸吐完譯本草問答. 대진. 주민출판사. 2004. pp.274-275. “此可分 亦可合 非截然分屬也 天之陽 可以助地之火 地之火 亦可以助天之陽.”

28)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 102 “在五行关系方面,心属火,脾属土,两者为火土相生之脏,构成母子关系. 淸·何梦瑤在《医确》中说‘脾之所以能运化水谷者,气也,气虚则凝滯不行,得心火以化之,乃健运而不息,是为心火生脾土.’ 明确指出了心火与脾土的相生关系. 所谓相生,也就是资生与温煦之意. 换言之,脾土须得心火与命門火的温煦,才能运化无穷,使万物滋荣.”

火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君火와 相火의 두 종류가 있다. 『東醫寶鑑·火門』 火有君相之二²⁹⁾에 인체에서 君火와 相火가 있다고 하였다. 『韓中醫學史概說』에 “相火라는 말은 『素問·天元紀大論』에 君火의상대로 처음 언급되었고, 그 아래 ‘少陽之上에 相火主之라’ 하여, 少陽은 相火로써 主를 삼는다는 구절이 있다.”³⁰⁾하여 相火란 단어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朱震亨은 특히 相火의 作用을 강조하였다. 본 論文에서는 朱丹溪의 『相火論』을 根據로 相火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韓中醫學史概說』에서 “丹溪는 陽動陰靜의 理論으로부터 動하는 것이 火라는 이론을 제기 하였다... ‘天主生物故로 恒於動하고 人有此生에 亦恒於動 하니 其所以恒於動은 皆相火之爲也라’하여 사람의 生命力이 오로지 相火一氣의 運動에 근원한다는 내용으로 丹溪가 생각하는 相火는 神秘하지 않고, 다만 人體가 生生不息하는 機能活動일 따름이다.”³¹⁾ 라고 하여 丹溪가 주장한 相火는 機能活動이면서 生命力에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相火와 君火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主閉藏者는 腎也오 司疏泄者는 肝也니 二藏이 皆有相火而其系上於心하니 心은 君火也라 爲物所感則易動하니 心動則相火易動하고 動則精自走라 相火翁然而起하면 雖不交會라도 亦暗流而疏泄矣라 所以 聖賢이 只是教人에 收心養心하니 其旨深矣라.’ 하였다. 즉 心火와 相火는 모두 陽으로, 物慾에 촉감되어 쉽게 妄動하는데, 만일 物慾에 촉감되어 흥연히 일어나면 陰精이 疏泄되어 發病이 된다고 하여, 그는 古人謂 不見所欲이면 使心不亂이라고 하였다.”³²⁾ 고 하여 腎과 肝의 相火는 心에 연계되어 있고 君火가 動해야 相火가 動한다고 하였다. 火가 君火와 相火 2

29)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1099. “五行各一其性 惟火有二 曰君火 曰相火 天火也.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以名而言 形質相生 配於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 生於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者 皆相火之所爲也.”

30)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편저. 韓中醫學史概說. 대진. 주민출판사. 2007. p.273.

31)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편저. 韓中醫學史概說. 대진. 주민출판사. 2007. pp.273-274.

32)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편저. 韓中醫學史概說. 대진. 주민출판사. 2007. p. 275.

가지로 나뉘지만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고 지도부와 실무진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韓中醫學各家學說』에서 “朱丹溪는 사물의 생존에 動靜의 두 측면과 불가분이라고 인식하였다. 丹溪는 相火의 ‘動’이 근본적인 것이며 ‘靜’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만일 動만 있고 靜이 없으면 妄動하게 되니 해가된다.”³³⁾ 고 하여 相火가 근본이 動하는 것이지만 靜이라는 制御機轉이 없을 시엔 病理狀態로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丹溪가 살던 지역이 남쪽이라 房勞傷의 경우가 북쪽지방보다 흔하였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火門』에 “여름 한철은 사람의 정신을 손상하는 시기이다. 心은 왕성하고 腎水는 쇠약하며 精이 물처럼 되었다가 가을에 가서 영기기 시작하고 겨울에 가서 굳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性生活을 더욱 적게 하고 精氣를 굳건히 보양해야 한다.”³⁴⁾ 東醫寶鑑에서 보더라도 여름철의 性生活을 금기시하고 있다. 하물며 한 계절이 아닌 일 년이 거의 여름철인 온대지방에서는 腎水가 弱해지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일 것이다. 丹溪가 주장한 “陽常有餘 陰不足論”에 대하여 『韓中醫學史概說』에 “丹溪의 陽常有餘는 欲情이 쉽게 妄動하면 相火가 熾盛하게 되어 病變이 발생한다는데 요점을 둔 것이지 인체의 眞陽을 가리켜서 한 말은 아니다.”³⁵⁾라 하였다. “丹溪는 人心은 쉽게 溫馨聲色등에 이끌려 心動하면 相火가 妄動한다.”³⁶⁾고 하였다. 현대에 있어 이러한 心動하게 하는 요인은 과거에 비하여 너무 많은 관계로 丹溪의 “動而中節”³⁷⁾이 필요하다. 이러한 心動하면 相火가 妄動의 결과로 食慾에 變化가 오게 된다. 『東醫寶鑑·火門』에 “午後에 熱이 나서 밤중에 가서 멎으며 입맛이 나는 것은 陰虛한 증이다. ……陽虛한 증은 原因이

위에 있고 陰虛한 증은 原因이 腎에 있다. 대개 배가 고프거나 배부른 것이 정도를 지나쳐 胃를 상하면 陽氣가 虛해지고 性生活을 지나치게 하여 腎氣를 상하면 陰血이 虛해진다. 옛사람들이 飲食과 男女關係로 인해서 陽虛와 陰虛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³⁸⁾라 하여 心動하여 陰虛에 이르게 되면 食慾에 증가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朱丹溪의 相火論에서 볼 수 있는 陰虛證狀은 心이 相火를 거쳐 消化에 2차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한다면, 張錫純의 君火論에선 心이 消化過程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朴基兌는 “宋代 許叔微의 ‘蓋因腎氣怯弱하여 自是不能消化飲食이니 譬如鼎釜之中에 置諸米穀이나 下無火力이면 雖終日이라도 米不熟이니 其何能化리요.’라고 한 이후 脾胃의 水穀代謝의 動力을 腎臟의 火에서 구하였다. 그러나 張錫純은 君火의 熱力이 胃中の 飲食을 消化 시킨다고 주장하였다.”³⁹⁾고 하였다.

『醫學衷中參書錄』에는 張錫純이 吸昇呼降하는 呼吸法으로써 心火를 下元으로 인도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주위에 사람들도 그 呼吸法으로 오래된 病을 治療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張錫純의 君火에 대한 주장은 理論上으로만 나온 學說이 아닌 臨床의 結果가 함해진 것이라 의미가 크다.

『醫學衷中參書錄』에 君火에 대한 설명으로 “人體에 熱力에 대해 方書에서는 항상 相火가 많은 것만을 責하고 있으나 君火는 熱力이 相火에 비해서 더 강함을 알지 못하였다. 대개 子女를 生育하는 것은 相火가 위주가 되고, 飲食을 消化 시키는 것은 君火가 위주가 된다.”⁴⁰⁾, “心은 君火로서 온몸의 熱을 다스리

33)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 364.
 34)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1083. “夏一季是人脫精神之時 心旺腎衰 腎化爲水 至秋始凝 及冬乃堅 是故尤慎房室 固養精氣.”
 35)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편저. 韓中醫學史概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 276.
 36)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 366.
 37)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 366. “주로 養生하고 寡慾하여 陰精을 모으고 보존하여 相火가 妄動하지 않게 하는 것”

38)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 1115. “【辨陽虛陰虛二證】陽虛 陰虛二證 丹溪辨之明矣 何則? 晝夜發熱 晝重夜輕 口中無味 陽虛之證也. 午後發熱 夜半則止 口中有味 陰虛之證也. 陽全陰半 陽得以兼陰 陰不得以兼陽 自然之理也. 陽虛之證 責在胃, 陰虛之證 責在腎. 蓋飢飽傷胃 則陽氣虛矣. 房勞傷腎 則陰血虛矣. 古人以飲食 男女爲切要 厥有旨哉.”
 39) 朴基兌. 張錫純의 心病理論과 證治에 관한 研究. 대전. 大田大 博士學位論文. 2008. p.13.
 40) 張錫純 著. 東新韓醫大 第1期 卒準委 譯. 醫學衷中參書錄 上卷. 서울. 醫聖堂. 1999. p.67. “人身之熱力, 方書恒責重相火, 而不知君火之熱力, 較相火尤勝. 蓋生育子女以相火爲主, 消化飲食以君火爲主.”

고, …… 그 熱力이 中焦에까지 미쳐서 命門의 相火를 왕성하게 하여 안으로 臟腑를 따듯하게 하고 밖으로는 온몸을 따듯하게 한다.”⁴¹⁾ 고 하였다. 朴基兌는 張錫純의 君火論에 대한 평가로 “첫째는 君火와 相火의 來源이다. 역대 의가들 중에서 君火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거의 드물다. 그렇지만 君火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였고 心이 君主之官이고 心主火 하므로 心臟의 火가 君火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張錫純은 君火는 心中에서 發한 陽中之火라고 분명한 언급을 하였고 이 火가 아래로 내려가 命門의 相火를 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탁견으로 相火가 君火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단전호흡을 통해 心火 즉 君火를 下行시키면 下元이 溫暖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相火가 왕성해지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둘째 君火의 作用이다. 역대로 우리가 섭취한 飲食을 消化시키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고 火生土의 작용에 의해서 음식물이 소화된다고 인식하였다. 許叔微가 二神丸條에서 ‘蓋因腎氣怯弱하여 自是不能消化飲食이니 譬如鼎釜之中에 置諸米穀이나 下無火力이면 雖終日이라도 米不熟이니 其何能化리요.’라고 한 이후 脾胃의 消化力의 動力을 腎臟의 火에서 구하였다. 그러나 張錫純은 君火의 熱力이 胃中の 飲食을 消化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의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⁴²⁾ 고 하였다. 필자는 朴基兌의 논지에 동의하며 張錫純의 君火에 대한 주장은 心이 人體의 君火이자 本熱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설명한 理論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張錫純의 君火에 대한 주장을 근거하여 본다면 心의 君火는 火生土의 作用으로 脾胃에서의 消化에 주된 動力이 되며 동시에 命門의 相火를 왕성하게 해 줌을 알 수 있다.

4. 心과 消化過程의 聯關性

飲食物을 섭취한 후 體內的 新陳代謝를 거쳐서 榮衛氣血, 津液, 大小便 등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 『素問·經脈別論』에 “食氣가 胃에 入하면, 精을 肝에 散하여 氣를 筋에 淫합니다. 食氣가 胃에 入하면, 濁氣가 心에 歸하여 精을 脈에 淫합니다. 脈氣가 經에 流하여 經氣가 肺에 歸하면, 肺가 百脈을 朝하고 精을 皮毛에 輸합니다. 毛와 脈이 精을 合하여 府에 氣를 行하면, 府精과 神明이 四藏에 留하고 氣가 權衡에 歸합니다. 權衡은 秤 平하니, 氣口成寸으로서 死生을 決합니다. 飲이 胃에 入하면, 精氣를 유일하여 위로 脾에 輸하고, 脾氣는 精을 散하여 위로 肺에 歸하며, 水道를 通調하고 아래로 膀胱에 輸합니다. 水精이 四布함에 五經이 并行하니, 四時 五藏 陰陽에 合하여 揆度함으로써 常을 삼습니다.”⁴³⁾ 의 구절이 대표적이다.

水穀代謝에서 水穀을 받아들이는 胃와 水穀의 消化를 하는 脾에 대해서 살펴보면 “脾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인데 위아래에 있으면서 胃氣를 도와서 飲食이 잘 消化되게 한다. 胃는 주로 받아들이고 脾는 주로 消化시킨다.”⁴⁴⁾ “胃는 飲食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脾는 消化시키는 기관이다.”⁴⁵⁾ 라 하여 脾와 胃의 役割에 대하여 胃는 受納腐熟作用, 脾는 消磨作用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였다. 『漢方醫學講習書·十二課』에 “水穀이 入胃하면 脾陽이 消化之 하나니 水之 消化較難於穀하니 脾土之磨化난 全賴於火라 火爲土母니 火旺土燥라야 力能克水하나니” 라 하여 胃에 들어온 水穀을 脾가 消化 시키는데 水의 消化가 穀의

41) 張錫純 著. 東新韓醫大 第1期 準准委 譯. 醫學衷中參書錄 下卷. 서울. 醫聖堂. 1999. p.42. “心爲君火, 全熱力之司命 … 是以其熱力透至中焦, 胃中之飲食因之熟腐, 更透至下焦, 命門之相火因之生旺, 內溫臟腑, 外暖周身.”

42) 朴基兌. 張錫純의 心病理論과 證治에 관한 研究. 대전. 大田大 博士學位論文. 2008. pp.12-13.

43)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3. pp. 140-141.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飲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五臟 陽, 揆度以爲常也.”

44)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316. “脾者 俾也. 在胃下 俾助胃氣 主化水穀也. 胃主受納 脾主消磨.”

45)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336. “胃爲水穀之海 脾爲消化之器”

消化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脾의 消化가 전부 火에 의지하는데 火가 旺盛해서 土를 말려 줘야 土克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脾主消磨 하는 作用은 火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東醫寶鑑·內傷門』에 “飲食이 잘 먹히지 않을 때에 脾를 補하는 藥을 써도 낫지 않는 것은 대개 腎氣가 몹시 衰弱하고 眞元이 弱하기 때문에 飲食을 消化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 안에 여러 가지 쌀을 넣고 술 밑에 불을 때지 않으면 온종일 있어도 쌀이 익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飲食이 消化될 수 없다. 옛날 黃魯直이 免絲子를 하루 몇 숟가락씩 10여 일 동안 술로 먹었더니 飲食을 먹지 못하던 것이 끊는 물에 눈 녹듯이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飲食을 먹지 못할 때 腎을 보하는 이치를 알 수 있다.”⁴⁶⁾ 라고 한 부분은 脾主消磨의 부분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아니라 胃主腐熟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이 腐熟作用의 主動力을 腎氣와 眞元 다시 말하여 相火라고 하였다. 그러나 相火와 君火의 消化過程의 聯關性은 앞 부분에서 이미 거론 하였듯이 淸의 張錫純은 “君火가 飲食을 消化시키는 主動力이 되며 心의 君火가 下元을 따듯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종합하여 본다면 脾主消磨나 胃主腐熟 두 가지 모두 心火의 氣運을 바탕으로 火生土의 作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脾胃에서 水穀代謝가 일차적이고 거친 消化라면 小腸에서의 消化는 좀 더 섬세한 消化를 한다. 『기초한의학』에서는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 이라 하였다. ‘受’는 받아들이는 것을, ‘盛’은 음식물을 담는다는 뜻이다. 小腸은 胃에서 초보적인 消化를 거친 飲食을 받아들여 비교적 장시간 저장하면서 다음 단계의 消化를 진행하므로 “受盛之官”이라 한다. “化物”이란 飲食物이 消化되어 나온 精微 物質을 흡수하여 人體를 영양하고 찌꺼기는 小腸에서 大腸으로 운반함을 가리킨다. ‘泌別淸濁’에서 ‘泌’는 분비, ‘別’은 분별의 뜻이다. 즉 泌別淸濁은 淸

濁을 분별한다는 뜻이다. 소장의 泌別淸濁의 기능은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小腸에서 飲食物을 精微 物質과 찌꺼기로 나눈다. 둘째, 飲食物의 精微를 흡수하고, 飲食物의 찌꺼기를 大腸으로 운반한다. 셋째, 小腸은 飲食物의 精微를 흡수하는 동시에 대량의 水液을 흡수하므로 “小腸主液”이라고도 한다.”⁴⁷⁾고 小腸의 役割을 설명하였다. 小腸은 人體의 臟腑配屬에 있어서 心과 表裏關係를 이루는 腑이다. 心과 小腸과의 關係를 『한의학총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心的 經絡은 心에 屬하고 小腸에 絡한다. 小腸의 經絡은 小腸에 屬하고 心에 絡한다. 두 臟腑는 經脈의 相互絡屬을 통하여 表裏를 이룬다. 心火陽氣는 小腸에 敷布하고 小腸은 “受盛化物”과 “泌別淸濁”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⁴⁸⁾ 이 처럼 心과 小腸은 經脈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화의 양기가 소장에 있으므로 小腸은 “受盛化物”과 “泌別淸濁”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상호간에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消化過程에서 중요한 2가지 과정인 脾胃에서의 거친 消化와 小腸에서의 섬세한 消化가 心과의 연관이 깊음을 알 수 있다.

III. 結 論

心은 君主之官으로 韓醫學에서 제일 중요한 臟器로 여겨져 왔고 養生法이나 道家修鍊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시 하여 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人體에 營養分을 供給해 주는 消化에 作用은 火生土의 作用이며 淸·何夢瑤는 『醫編』에 이야기하길 脾의 運化作用은 心火를 얻어야 健實하게 作用을 하며 이것이 心火가 脾土를 生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消化란 섭취한 飲食物을 體內에서 吸收할 수 있는 液體를 만들고 細胞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단순한 形態로 變化 시키는 物理的·化學적 作用 또는 그 過

46)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 1147. “不進食 服補脾藥不效者 蓋腎氣怯弱 眞元衰削 是以不能消化飲食. 譬之鼎釜之中 置諸米穀 下無火力 終日米不熟 其何能化. 黃魯直服兔絲子 日挑數匙 以酒下 十日外 飲啖如湯沃雪 亦知此理也.”

47) 배병철. 기초한의학. 서울. 성보사. 2005. pp.210-211.

48) 羅昌洙外 17人 教授 共編著.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6. p.310.

程이며 洋方에서 보는 消化는 크게 부위 별로 본다면 입에서의 消化, 胃에서의 消化, 小腸에서의 消化, 大腸에서의 水分吸收의 네 가지 과정이다.

心은 五行上 火에 配屬 되고 숫자로는 2·7에 해당된다.

心의 形象에서 七竅가 많이 거론되는데 이는 解剖構造上으로 실제 七竅가 있다는 意味보다는 얼굴에 五官이라고 부르는 七竅가 있고 五官은 神氣之門戶로 精神作用을 하는 고로 心臟이 心主神 하는 것과 聯關하여 心에 七竅를 거론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五官이 각각의 作用을 하기 위해서는 五官이 제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淸升濁降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中氣가 升降의 役割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臟腑로서는 土에 해당하는 脾胃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도 心과 土인 脾胃의 聯關性이 發生하는데 心과 脾의 相互關係는 脾가 後天之本으로서 心에 氣와 血의 物質의 基礎를 공급해 주어야만 心의 神志活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胃는 心과 經絡으로 通하여 있으므로 心과 胃는 밀접한 關係에 있다고 하였다. 간추려 본다면 心의 心主神, 心主血 하는 기능이 모두 脾胃의 氣血生化之源으로서의 作用에 의지한다. 이 부분은 緒論에서 이야기한 物質의인 基礎 위에서 즉, 잘 먹어야 精과 氣가 잘 생기고 그래야 神도 왕성해진다는 부분에 해당한다.

生理的인 입장에서 火는 相火와 君火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相火는 朱丹溪가 相火論에서 相火의 作用을 강조하였다. 丹溪가 주장한 相火는 機能活動이면서 生命力에 근본이 되며 腎과 肝의 相火는 心에 연계되어 있고 君火가 動해야 相火가 動한다. 相火와 消化過程의 聯關性은 心動하면 相火가 妄動의 결과로 食慾이 증가 되는 것이다.

朱丹溪의 相火論에서 볼 수 있는 陰虛證狀은 心이 相火를 거쳐 消化에 2차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한다면, 張錫純의 君火論에선 心이 消化過程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張錫純의 君火에 대한 주장은 본 論文에서 제일 중요한 바탕이 되는 부분으로 그는 “人體의 熱力에 대해 方書에서는 항상 相火가 많은 것만을 責하고 있

나 君火는 熱力이 相火에 비해서 더 강함을 알지 못하였다. 대개 子女를 生育하는 것은 相火가 위주가 되고, 飲食을 消化 시키는 것은 君火가 위주가 된다. 心은 君火로서 온몸의 熱을 다스리고, ... 그 熱力이 中焦에까지 미쳐서 命門의 相火를 왕성하게 하여 안으로 臟腑를 따듯하게 하고 밖으로는 온몸을 따듯하게 한다.”고 하였다. 張錫純의 주장은 心이 人體의 君火이자 本熱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설명한 理論이며, 心의 君火는 火生土의 作用으로 脾胃에서의 消化에 주된 動力이 되며 동시에 命門의 相火를 왕성하게 해 줌을 알 수 있다.

脾胃에서 水穀代謝가 일차적이고 거친 消化라면 小腸에서의 消化는 좀 더 섬세한 消化를 한다.

脾胃에서의 消化를 본다면 ‘胃主受納 脾主消磨’에서 알 수 있듯이 脾와 胃의 役割에 대하여 胃는 受納腐熟作用, 脾는 消磨作用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였다.

水穀에서 液體인 水가 穀보다 消化가 어려운 것은 脾의 消化가 전부 火에 의지하는데 火가 旺盛해서 土를 말려 줘야 土克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脾의 消磨作用은 火에 의해서 진행된다. ‘不進食에 服補脾藥不效者는 蓋腎氣怯弱하여 眞元衰削이라 是以로 不能消化飲食이니 譬之鼎釜之中에 置諸米穀이라도 下無火力이면 終日米不熟이니 其何能化리오’의 구절은 胃에서의 腐熟作用을 이야기 한 부분으로 원래는 眞元이 강해야 胃에서의 腐熟作用이 잘 이루어짐을 이야기 하고자 함인데 張錫純의 理論을 적용하여 본다면 胃에서의 腐熟作用 또한 君火 즉 心火가 강해야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본다면 脾主消磨나 胃主腐熟 두 가지 모두 心火의 氣運을 바탕으로 火生土의 作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小腸은 精微로운 消化를 하는 곳으로 小腸은 胃에서 초보적인 消化를 거친 飲食을 받아들여 비교적 장시간 저장하면서 다음 단계의 消化를 진행하므로 “受盛之官”이라 한다. 心과 小腸과의 關係는 火生土의 關係는 아니다. 두 臟腑는 經脈의 相互絡屬을 통하여 表裏를 이룬며 心火陽氣는 小腸에 敷布하고 小腸은 “受盛化物”과 “泌別淸濁”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이상으로 火生土의 概念에서 心과 消化의 相互關係를 살펴 본 결과 脾胃는 心에 營養分을 공급해 주고 동시에 中氣로서 清升濁降의 作用을 수행해 주어야 五官에서 神氣의 出入이 자유롭게 된다. 心은 消化의 중추인 脾胃의 脾主消磨와 胃主腐熟에 原動力이 되며, 섬세한 消化를 하는 小腸과는 相互絡屬을 통하여 表裏를 이룬다. 고로 消化 전반에 걸쳐 연관이 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心主神의 作用을 고려한다면 精神感情에 의해 消化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脾胃의 작용도 精神과 感情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朴基兌. 張錫純의 心病理論과 證治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p.12, 13.

「단행본」

1. 김기환, 김진, 김중수, 성호경, 심동원, 엄대용, 엄응의, 이상돈, 이종훈 저. 생리학. 서울. 의학문화사. 1992. pp.199-218.
2. 羅昌洙外 17人 教授 共編著.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6. p.310.
3. 당중해 원저.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편저. 懸吐完譯本草問答.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p.254-259, 274-275.
4. 民衆書林編輯局. 옛센스國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1. p.1269.
5. 배병철. 기초한의학. 서울. 정보사. 2005. pp.210-211.
6. 成周鳳 著.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1, 35.
7. 王琦 主編. 中醫臟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102, 104.
8.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364, 366.
9. 張錫純 著 東新韓醫大 第1期 卒準委 譯. 醫學衷

- 中參書錄 上卷. 서울. 醫聖堂. 1999. p.67.
10. 張錫純 著 東新韓醫大 第1期 卒準委 譯. 醫學衷中參書錄 下卷. 서울. 醫聖堂. 1999. p.42.
11.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120, 126, 142, 146, 157, 310, 316, 336, 1083, 1099, 1115, 1147.
12. 한규성. 주역에 대한46가지 질문과 대답. 서울. 도서출판사 동녘. 1996. p.68, 180, 181.
13.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3. p.18, 41, 66. pp.37-39, 140-141.
14.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편저. 韓中醫學史概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273, 275, 276. pp. 273-274.

